

한일관계 - 과거 직시와 미래 지향에 대하여

공로명 孔魯明
한일포럼 고문



한일 간에는 구 일본 제국의 한국 식민 통치가 가져왔던 상흔傷痕 때문에 역사 인식 문제가 있어 왔다. 1951년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1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첫 회의에서 한국 측이 “이제 양국은 구원舊怨을 잊고 화해하자”고 첫 마디를 뱉을 때 일본 측에서 “양국 간에 화해할 그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했다는 얘기가 말해 주듯이,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초기의 일본 정부 관리들의 태도에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침략행위에 대한 역사 총괄이 이루어지지 않음

우리는 흔히 일본의 이러한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독일의 경우와 비교한다. 독일은 패망과 동시에 독일을 지배해 왔던 나치 정권의 구성원들은 일소되고, 나치에 항거했던 민주 세력 지도자들이 정권을 담당하면서, 나치의 잔재를 독일에서 몰아내는 정책을 펴왔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군부를 제외한 지배층이 미국의 점령 정책에 따라 온존溫存되었던 까닭에 2차대전 이전의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역사 총괄總括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1998년 장쩌민 중국 주석의 일본 방문 시 중국 측이 김대중 대통령의 방문 시 표명되었던 일본 측의 역사의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여 일본의 역사 문제가 논란이 된 사실과 관련하여 일본의 온건 보수의 양심적 사표로 존경받던 고토다 마사하루(後藤田正晴) 전 자민당 부총재

가 아사히신문의 칼럼에서 일본이 전후 역사 총괄을 못한 것은 천황에 대한 전쟁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식적으로 피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일본은 전후, 특히 1960년대 이후 수없이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공식적으로 표명해 왔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의 뇌리에는 일본은 전과前過를 반성하지 않거나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최근에도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도자는 “일본 군대에 의하여 식민지 병합을 경험하고 일본의 진실한 사죄가 없는 상황에서” 군사적 협력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음에서 얘기하듯 일본은 공식적으로 반성과 사죄의 말을 그간 여러 번 표명해온 것이 사실이다. 천황을 비롯하여 역대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반성과 사죄를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표명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일부 보수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의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포명하여 현직에 있던 대신들이 면직되는 일도 되풀이되었으며, 이러한 일들이 한국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된 것도 사실이다.

사죄하는 측과 사죄를 받는 측의 마음이 불합치

사죄하는 측과 사죄를 받는 측의 마음이 합치될 때 그 사죄는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한

일 양국은 이 반성과 사죄, 그리고 그러한 사죄를 받아들이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외교문서로 남겼고, 이를 기초로 새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21세기에 구축해 나가자고 성명하는 외교적 문서를 양국의 수반이 서명한 일이 있다. 바로 1998년 10월 8일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일본의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고 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의 역사 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의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이에 앞서 무라야마 총리는 일본 패전 50주년을 맞는 1995년 8월 처음으로 일본의 패전의 의의를 총괄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총리 담화에서 “일본은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에 국가 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역사의 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통렬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하였다.

또한 민주당 총리였던 간 나오토 총리는 한일합방 100주년이 되는 2010년 8월 10일,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로 한국 민족의 긍지를 손상케 한 사실을 들며, “본인은 역사에 대하여 성실히 대하고,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겸허하고 자기 과오를 반성하는데 솔직할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식민지배가 가져왔던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여기에 새삼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고 하였다.

일본 국민의 기억에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수없이 한국에 대하여 사죄하여 왔다는 것만이 있고, 한국인의 뇌리에는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식민지 시대를 미화하는 망언을 거듭하는 일본 정치가들의 이미지만이 살아있다. 일본인은 사죄 요구에 식상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는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역사 속 가해자는 언제나 겸허해야 하고, 피해자는 관용해야만 미래가 있고 협력의 공간이 생긴다.

가해자는 언제나 겸허해야 하고, 피해자는 관용해야 미래가 있고 협력 공간이 생겨

1985년 5월 8일, 서독의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대통령은 독일 패전 40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을 서독 의회에서 행했으며, 그 내용은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다. 그는 “과거에 눈을 감는 자는 현재를 보지 못하며, 과거의 비인도적 과오(inhumanity)를 기억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역사를 직시할 것을 서독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요구하였다. 독일의 젊은이들이 대전 중의 독일의 만행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나, 역사의 유산(legacy)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충고한 것이다.

한 번의 패자敗者는 영원한 패자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했다고 한다. 이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개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는 1961년 조국 근대화의 기치 아래 온 국민이 피땀을 흘린 덕분에 51년만에 성취한 대장정이다. 1987년 일본이 첫째로 20-50 클럽 멤버가 되었고, 이듬해 미국, 1990년 이탈리아, 프랑스, 1991년 독일, 1996년 영국에 이어 2012년 우리가 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승리의 기록이며 자긍심을 가질 만한 성취이다. 1910년 우리가 패자가 되었다고 하여 영원한 패자가 되라는 법이 없다.

우리가 19세기 동아시아에서 패자가 되었던 것은 당시 우리의 지도자들이 국제정세에 어두웠고 무지하였던 탓에 국권을 빼앗긴 것이다. 주변 제국주의 국가들이 호시탐탐 침략과 지배의 기회를 노리는 데에도 단결하고 선진 기술을 배워 힘을 기를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분열하였던 것이 우리의 멸망을 초래하였다.

우리는 왜 동아시아에서 패자敗者가 되었는가?

1840년 영국이 아편전쟁을 일으켜 청을 패배시키고 북경 조약을 통하여 홍콩을 100년 간의 조차지租借地로 할양받고, 중국의 연안에서의 무역권을 갖는 데 성공할 때 일본은 청의 패배를 누구보다도 일찍 알고, 지도층과 지식층이 위기감을 높이고 300여 봉건 영주가 통치하던 도쿠가와 막부 체제를 뒤엎고 개국할 때, 슬프게도 중화질서의 중심인 중국이 영국에 패배한 전쟁을 우리 조야는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해 북경에서 돌아온 동지사의 귀국 보고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가일층 나라 문을 가두어 잠그고, 외국 문명을 배척하는 길을 걸으며 밀려오는 서세西勢에 담을 쌓고 *비전즉화 주화즉매 국非戰則和 主和則賣國이라는 척화비*斥和碑를 방방곡곡에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직시하고

과오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를 타도할 때 내세웠던 근황양이勤皇攘夷의 구호는 메이지 유신과 동시에 내던지고 내각의 대신의 반을 해외 순방에 2년 간 내보내어 근대 문명의 도입에 앞장섰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정변政變의 사실을 우리나라에 알리는 국서를 1869년에 보내왔다. 이때 우리나라는 그 *서계書啓와 사신의 접수를 전후 7년간 거부하다가 급기야는 일본 정부 내에 정한론征韓論을 불러오는 단초를 제공했고, 중국에는 일본 군함 7척 앞에 굴욕적인 병자수호조규를 체결하게 되었다.

우리는 일본에게 역사를 직시하라는 얘기를 해왔으나, 반

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직시하고 과오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일찍이 필자는 1999년 여름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 여사를 로마에서 만나 환담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가 동 여사에게 천 년의 로마 멸망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일언직하 “그것은 로마 지배층의 내부 분열로 제때에 행동 조치를 취할 수 없던 것이 원인”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고금의 역사에서 한 나라의 내부 분열로 나라가 망한 예를 수없이 보아 왔다. 수隋, 당唐과 당당히 맞서 싸워왔던 고구려가 연개소문 사후 그의 아들 남생 형제 간의 다툼으로 멸망의 길을 걸었고, 조선조 말 대원군과 명성황후 간의 권력다툼이 조선조의 사양화를 촉구했으며, 심지어 명성왕후를 살해하기 위하여 경복궁으로 향하던 일본 낭인들의 호위 하에 대원군이 경복궁 앞에 와 있던



경복 청도에 있는 척화비. 지금도 전국 도처에 1백여 기가 남아 있다.

사실을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알고 있을까. 우리의 무지와 과오를 눈 감고 민족주의 사관에서 그 시대의 지배적 사상이었던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의 비윤리성만 탓하고 있다면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끌어낼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은 어지럽게 변해가고 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세계 1, 2, 3, 4위의 군사력, 경제력을 갖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는 중간급의 작은 나라이다. 2026년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하리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예측도 있었다. 지금 11조 4천억 달러로 미국의 18조 달러에 뒤지는 중국의 GDP가 2026년에는 22조 8천억 달러로 성장해 미국을 5천억 달



한민구(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 11월2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러 앞선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군사력으로 미국을 추월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미국의 군사력 우위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은 틀림없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 추월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날로 힘을 더해가는 중국이 패권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은 연년세세 강화되고 있다. 남중국해를 *구단선 九段線으로 획선하여 마치 중국의 내수화하려 하여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 분규를 자아내고 있고,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87%(중동 84%+아시아 약 3%)가 통과하는 남중국해의 스카보로초에 해군기지를 조성하여 항해의 자유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중국의 팽창주의적인 패권 행위를 견제하고 우리가 자주 독립을 보전하며 핵무기의 소형화와 잠수함의 유도탄발사 능력을 갖추려 하는 북한의 핵의 위협에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동맹에 버금가는 우호협력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전략과 깊이 관계된다.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대일관을 가져야

미국은 오래 전부터 한일관계가 동맹에 버금가는 관계(Virtual Alliance)로 발전하기를 그들의 동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 왔다. 우리의 한일관계를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일 거부감이 55%로 10년 전의 43%보다 더 악화되어 있다고 한다.

역사 앞에 일본은 겸허하고, 한국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민주 일본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우리 자신의 생존 전략에 필요하다.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새로운 대일관對日觀을 가져야만 한다. **필자**

*서계書啓 : 조선 시대에, 임금의 명령을 받은 벼슬아치가 일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만들던 문서.

*비전즉화 주화즉매국非戰則和 主和則賣國 : (양이침범洋夷侵犯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니,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척화비斥和碑 : 조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양인洋人을 배척하는 쇄국정책을 위해 위 비문으로 경향 각지에 세운 비석이다.

필자 약력

주 일본 대사(1993-1994)

외무부 장관 (제25대, 1994.12-1996.11)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석좌교수(2007-현재)

동아시아재단 이사장(2010-현재),

한일포럼 회장(2003-2012), 현재 고문